

# 해외 출판



새 국제도서전이 열리는 케이프타운(사진·하나투어).

글 | 문승현(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 독일, 오디오북 시장 급성장

독일출판서적상협회에서 발행하는 출판전문잡지 <뵘르젠블라트>에 소개된 자료에 따르면, 독일 오디오북 시장이 전년 대비 14.7퍼센트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에 있어 강세를 보인 분야는 단행본(47.6퍼센트)이었으며, 아동·청소년 도서(24.5퍼센트), 학습서(12.4퍼센트)가 그 뒤를 이었다. 독일 전체 도서시장에서 오디오북의 파이는 3.2퍼센트, 전년 대비 0.5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오디오북의 전체 매출액은 1억4,000만 유로(1,8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디오북 매출부분 1위는 1,65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한 하이퍼어라크Hrverlag였으며, 2위는 7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한 랜덤하우스오디오Random House Audio가 차지했다. 오디오북 통셀러리스트 1위는 190만 부가 판매된 <해리포터>가 차지했으며 베스트셀러 리스트 1위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가 차지했다.

## 프랑스, 2004년 베스트셀러 발표

프랑스의 출판전문잡지 <리브르에브도>는 총 85만7,300부가 판매된 댄 브라운의 <다 빈치 코드>를 2004년 프랑스 베스트셀러로 발표했다. 83만5,200부가 팔린 만화 티토프의 <나디아 결혼하다>가 간발의 차이로 2위를 차지했으며, 45만3,000부가 팔린 문고판 <영원한 7일Sept jours pour une ternit>이 3위를 차지했다. 한편 <다 빈치 코드>는 영국에서 2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2004 영국 베스트셀러에 꼽히기도 했다.

## 새로운 국제도서전 준비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새로운 국제도서전 '케이프타운도서전'을 알리며 남아프리카공화국출판협회와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회가 협정서에서 명했다. 케이프타운도서전은 2006년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케이프타운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협정서 체결식에서 폴커 노이만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장은 "케이프타운도서전이 세계 주요 연례출판행사가 될 수 있도록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측에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출판협회 측은 "케이프타운도서전은 저작권 거래에 집중할 계획이며, 대중들에게도 중점을 뒀다 다양한 부대 행사로 축제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 브레히트는 스포츠맨?

### 베를린 '2005 브레히트 축제' 열어

독일의 문호 브레히트를 기리는 '2005 브레히트 축제'가 2월 7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베를린 브레히트하우스에서 개최됐다. 올해 주제는 스포츠 애호가로서의 브레히트를 발견하자는 취지에서 '브레히트와 스포츠'로 정해졌다. '브레히트와 스포츠: 이벤트와 경험으로서의 투쟁 강연'을 비롯해 토론과 낭독회, 연극공연과 영화상영이 축제기간 내내 이어졌다.

## 영국 펭귄출판사,

### 눈길 끄는 70주년 창립기념 행사

귀여운 펭귄 로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의 펭귄출판사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펭귄출판사는 이를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행사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포켓 펭귄 시리즈' 출간이다. 64쪽짜리 문고판 도서를 70종 출간할 예정인데, 펭귄출판사에 소속된 고전 및 현대 작가들의 작품이 여기에 담긴다. 펭귄출판사는 '포켓 펭귄 시리즈'의 디자인을 독특하게 진행했는데, 디자이너 70명에게 70파운드를 주고 7일 안에 디자인을 하게 했다. 한편 '포켓 펭귄 시리즈'의 판매가격은 1.50파운드로 책정됐다.

## 중국과 미국 출판계의 상호 진출

중국의 상하이 신문국은 미국의 리더스다이제스트와 공동출판 협정을 맺은 데 이어 미국 내 중국 도서유통을 도울 리소스를 리더스다이제스트의 도움을 받아 구축하고 있다. 리더스다이제스트 관계자는 “미국 내 중국도서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대중 심리학과 자기계발서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인테리어, 디자인, 기업경영, 비즈니스에 관한 도서도 판매 붐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프랑크푸르트도서전과 런던도서전에 설치되는 미국종합도서전시관은 올해 처음으로 북경도서전에 설치될 예정이다. 미국교육출판협회도 공간을 마련하여 회원사들의 전시를 종합 전시할 계획이다.

## 일본 만화, 미국 진출

샌프란시스코 소재 만화 출판사 Viz LLC는 일본의 쇼넨점프사와 아메리카 온라인의 레드 서비스 간 마케팅 협정서 체결을 발표했다. 아메리카 온라인의 레드 서비스는 10대들을 위한 웹사이트로, ‘드래곤볼 시리즈’ 13편의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며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

‘드래곤 볼 시리즈’는 쇼넨점프사의 웹사이트에 공급되기에 앞서 AOL 레드에 48시간 동안 독점 공급될 예정이다. AOL 레드에는 10대 회원 약 1,1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에 10만 명이 사이트를 방문, 매달 300만 명이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협정서 체결은 Viz LLC가 쇼넨점프의 인기 있는 콘텐츠를 홍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일본의 쇼넨점프는 월간지 발행부수가 17만5,000부를 기록하고 있으며, ‘드래곤볼’, ‘히라쿠노고’, ‘나루토’와 같은 시리즈를 다루고 있다. 쇼넨점프는 AOL 레드를 완벽한 마케팅 장소로 생각하고 있다.

## 미국 작가들에게까지 확대된 영국 부커상, 올해의 수상자는 누구?

영국과 미국에서 ‘맨 부커 인터내셔널 어워드 Man Booker international award’의 ‘최고의 소설작가’ 수상자 후보리스트를 발표했다. 미국측에서는 솔 벨로우, 존 업다이크, 필립 로스가, 영국측에서는 무리엘 스파크, 도리스 레싱, 이안 맥이완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 영국의 부커상은 올해 처음으로 미국 작가들에게 확대되었다. 후보리스트에는 언급된 작가들 외에도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마르케스, 독일 작가 귄터 글라스, 이집트 작가 디킨즈 나킵 마푸즈, 캐나다 작가 마가렛 애트우드, 폴란드 작가 스타니스라프 렘 등이 후보리스트에 올라 있다. 또한 알바니아 작가 이스마일 카다레, 폴란드 작가 밀란 쿤데라, 아르헨티나 작가 토마스 엘로이 마르티네스,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 미국 작가 신시아 오지크, 이탈리아 작가 안토니오 타부치, 이스라엘 작가 AB 여호수아가 경쟁하게 된다. 본 상의 심사위원장인 존 캐리교수는 “이들 18명의 작가들은 독특한 자기 색깔과 보편성을 결합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최대의 현금운송회사인 맨 그룹의 하비 맥그래스 회장은 “맨 부커 인터내셔널 프라이즈가 짧은 기간 내 세계에서 중요한 문학상 대열에 오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본 상의 후보작가들의 평균 연령은 74세. 이집트의 마푸즈가 94세로 가장 많고 영국의 맥이완은 56세로 가장 젊다. 상금은 6만 파운드로 책정됐다. **▶▶**



미국에 진출하는 일본 만화.  
사진은 국제도서전에 설치된 일본만화 부스.